

시연(施連) 칼럼

## 토박이 마을 땅이름과 나무



글: 권오신

안동권씨 좌윤공파종회 회장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내려오는 땅이름이 있다.

경주시 내남면 등골에서 태어나 이웃 이조마을에서 살면서 땅이름과 나무를 찾는데 30년을 바친 족친이 있다. 권순채(67, 사정공 매현계 후손)작가 겸 시인(詩人)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명(地名)은 순수 토박이 이름이 거의 사라졌다. 법정 동명은 한자, 행정동과 통 단위는 숫자 나열이고 건물은 외래어 투성이다. 여기에 일본 잔재어까지 통용되고 있다.

더욱이 3년 전부터 일본식 주소 표기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입한 도로명주소마저 뒤죽박죽이어서 세계 각국의 언어, 외래어(外來語)가 모인 전시장 같다.

저자(著者)는 한반도의 지도를 펴놓고 볼 때마다 엄청 속이 상하고 화가 났다고 한다.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두고 한자어나 일본 행정 잔재어로 지어서 외침(外侵)을 당했던 역사 속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는 것 같아 그 분함을 참지 못해 땅이름을 찾는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1985년부터 땅이름 찾기에 나선 '동매 권순채' 저자는 순수 우리말 이름 찾기 8년 만에 〈토박이 땅이름 1993〉을 펴냈다. 〈풀꽃 나무들아 2014〉 〈토박이 마을과 땅이름 2015〉 〈농부와 수녀의 유별난 한글 사랑 2016〉 등 12권을 자비 출간했다.

책 속 땅이름의 해설(解說)과 유래를 겸한 풀이가 재밌고 정감(情感)이 넘친다.

경주시 내남면의 망성리(일본 잔재어)의 순우리말 지명은 '등골'이다. 천장봉을 앓고 있는 모습이 등골과 그 둥근 산 아랫마을이라 해서 '등골'이다. '술안각단'은 소나무로 둘러싸인 순술베이 안쪽에 있는 마을을 일컫는다.

절과 탑이 있었던 마을은 '탑골'이다.

경상도(慶尙道) 방언(方言)으로 탁골이라고도 부르지만 '탑골'이다. 사찰(寺刹)이 많았던 경주(慶州)지방엔 흔한 마을 이름이다. 대표적 예가 경주시 율동 '못안' '고갯길' 아래 마을이며 이 절의 주지 스님 법명(法名)이 '두옹'이었다. 두옹 스님이 일제 말 염불을 하면서 큰 빗, 적은 빗을 막아서 염불지라고 불렸다. 그에 탑이 있었기에 불여진 이름이다.

경부고속도로 경주인터넷인기가 유통(栗洞)들을 차지하고 있지만 고속도로가 들어서기 전엔 유통(栗洞)들에서 나는 한해 벼수확 물량으로 몇 동네가 먹고 살았을 만큼 큰 들이었다.

우리나라 지명에 '박수골'도 자주 등장한다. 무당(巫堂)이 살았던 마을로 동네와 떨어져 사는 특수한 관계여서 '박수

꼴'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남성미'는 경주시 내남면 성부산(문필봉) 남쪽 줄기의 끝에 있는 마을로 남쪽 별 꼬리에 해당하는 마을이란 뜻이 숨어있다. 뜻풀이를 듣지 않으면 쉽게 다가설 수 없다.

노거수에 대한 조사도 완성, 개발로 사라져가는 노거수를 지키는데에도 한몫을 했다.

경주시 덕천리 팽나무(수령 3백년 추정)는 해마다 정월 대보름 새벽 동제(洞祭)를 지내는 전설(傳說)이 서린 나무다.

작가는 "이 팽나무를 비켜 가는 곳에 나무줄기가 뒤엉킨 희귀 '왕버들떡버들나무'가 이 동리의 역사와 함께 성장했었는데 10여 년 전 용장 밭길간 도로를 내면서 없애버려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토박이 마을" 한 권에 실린 땅과 나무 이름이 줄잡아 5천 개가 넘는다고 하니 저자의 집념을 짐작할만하다. 특히 필자는 책 한 권이 출간할 때마다 책 속에 실린 주요 사진을 담은 우표(郵票) 2,200장을 제작, 땅 이름과 우리말 보급 운동에 관심을 갖는 학계와 단체에 나눠주기도 했다.

작가는 역사의식도 상당히 강하다.

단종(端宗) 사화 때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 김문기(金文起) 등이 사육신(死六臣)이었다면 설잠(雪岑) 김시습(金時習 1435~1493 조선초기의 문인, 학자이자 승려), 남효온(南孝溫) 이맹전(李孟專) 등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정신을 내걸고 은둔생활로 일생을 마친 여섯 명을 두고 생육신(生六臣)이라 부른다.

경주 남산 용장사(葺長寺)에서 은거(隱居) 생활을 이은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은 31살 때에 조선 최초의 한문 단편소설(短篇小說) '금오신화'를 썼다. 금오신화엔 만복사저포기(萬福寺擣蒲記) 용궁부연록(龍宮赴宴錄) 등 다섯 편의 한문소설이 실려 있다.

권순채 작가는 매년 2월 조선 최초의 한문 단편소설을 탄생시킨 용장사에서 "매월당 김시습 금오신화제"를 주관하고 제향의 경비도 부담하고 있다.

필자는 우리말에도 상당한 자신감을 가졌다.

2016년에 펴낸 〈농부와 수녀의 유별난 한글 사랑〉이 말해준다.

2004년 〈문학세계〉를 통해 수필 신인문학상을, 2014년과 2016년 자유문학과 한국신춘문예를 통해 시인(詩人)으로 등단(登壇)하고 올해 6월 권순채시집 "신라 토박이 마을"을 출간했다.

첫 시집에 실린 백운대, 별내, 틈수골 등 96편의 시(詩)는 저자가 낮에는 농사를 짓고 농한기를 이용한 30년 밭물을 펼아 채집했던 땅이름과 나무, 토박이 마을과 일한 이야기까지를 순우리 말로 지은 아름다운 문체의 시(詩)여서 이 시집(詩集)만 읽으면 마치 우리 말 딸인(達人)이 된 느낌이다.

경주시 내남면 등골, 등 굽은 소나무처럼 고향마을을 지켰던 작가는 2017년 '자랑스런 경주문화인상과 경주시 문화상을 받았다.

**권순채**  
작가 겸 시인

## 안동능곡회 34주년 기념 및 회장단 이·취임식



0년 7월 10일(금) 18:30  
경기 청원군 청원읍 청원로 180-1  
[장소]

김기형 신임 회장



권기원)"가 등장, '항구의 남자' '시골버스'

'보약같은 친구야' 등 네 곡의 노래에 맞추어 힘차게 북을 두드려 분위기를 상승시키는 등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난타·공연이 끝나자 권오건 회장은 권기형 신임회장에게 능곡회를 인수인계하였다.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많은 장맛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장맛비가 그치기 시작하여 어느 때보다 날씨가 천명하여 행사를 무사히 치룰 수 있었다.

이날 참석한 내빈은 권숙동 안동종친회장, 권기호 전국파종회장협의회 회장, 권오의 대종회 사무부총장, 권영건 부회장, 권영준 전국립안동대 교수, 권기창 국립안동대 교수, 권영길 한국국학진흥원 인문정신연수원장, 권광택 경북도의회 의원, 권희태 능우회장, 능곡회원 및 능우회원, 능곡회 부인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능곡회 명예회원인 권영세 안동시장은 비쁜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권순의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권오건 능곡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국기에 대한 경례, 시조묘소 망배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권오건 회장은 나이 제한으로 능우회로 넘어가는 권기원, 권기종, 권영국, 권용순, 권순학 등 5명에게 감사패와 행운의 열쇠를 전달하고 이율러 사진작가인 권영목 회원은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 1장씩을 케이스에 넣어 이들에게 선물로 전달하기도 했으며 권동관 회원에게 우수회원패를 전달했다.

34대 권오건 회장은 이임사에서 "능곡회의 전통을 지켜나가기 위해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지난 1년은 행복하고 즐거웠으며 임기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감사표현했다.

2부 행사는 권용철 신임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행사장 분위기를 바꾸는 의미에서 5인조 난타팀인 '기적소리(단장)

발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곧이어 권순태 국립안동대 총장을 능곡회 명예회원으로, 권순찬(안동시청 주무관), 권오성(K.플라워 대표), 권오흡(안동와룡농협 과장보), 권영민(밝은재가노인복지센터 대표), 권일경(오광푸드(육가공) 대표), 권오석(신화콘크리트 상무), 권태준(안동승마공원 대표), 권오섭(용상마포갈비 대표) 등 8명을 정회원으로 입회시키고 임회증과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어 올해 능곡회를 이끌어 갈 제35대 회장단 임원 소개가 있은 후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였다. 현재 능곡회원은 총 116명이나 된다.

권기형(36세, 복야공파) 신임회장은 안동 경안고와 대구대학교를 각각 졸업하고 현재 제일자동차상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인 과경희 여사와의 사이에 1남 1여를 두고 있다.

이날 권해옥 대종회 회장, 권숙동 안동종친회장 등 60여 명이 환한 난화분을 보내왔다.

3부 행사는 만찬으로 뷔페로 저녁식사를 했으며 식사가 끝나자 능곡회원들이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고 헤어졌다. 권기형 신임회장은 참석자 전원에게 타월 1장씩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보도부 기자



보도된 내용	정정 보도
'권촌의 아들은 세 명인데…'	'권촌(權村)의 아들은 권자홍(權自弘)이고 권자홍의 아들은 세 명인데…'로
권책(策) 18-권자홍(自弘) 17-권전(專) 16-권백종(伯宗) 15-권정평(正平) 14	권책(策) 18-권자홍(自弘) 17-권촌(村) 16-권백종(伯宗) 15-권정평(正平) 14
정효각 사진 설명 중 '20대조 권백종 정효각'을	'15대조 권백종 정효각'으로

## 공항으로 가는 가장 편안한 길!

행복한 여행의 시작과 끝을 공항리무진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컨템포디보



인천공항 전경